

짐바브웨 대선결과 발표와 향후 전망

□ 집권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무가베 정권

- 결과발표를 한 달여간 지체 후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발표함.
 -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28년째 짐바브웨를 통치하고 있는 로버트 무가베 (Robert Mugabe, 84) 대통령이 3월 29일 치러진 대선 결과를 한 달여간 지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5월 2일, 최종 선거결과를 발표함.
 - 금번 대선에서는 무가베 대통령과, 야당 민주변화운동(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 : MDC)의 모건 쓰방기라이(Morgan Tsvangirai, 56) 총재 그리고 무가베 정권의 재무장관을 지낸 심바 마코니(Simba Makoni, 58)가 출마했으며 각각 43.2%, 47.9%, 8.3%의 득표율을 기록함. 짐바브웨 선관위는 50%를 넘는 과반득표자가 없어 무가베 대통령과 쓰방기라이 간 최종 결선투표를 오는 6월 27일에 실시하기로 함.
- 집권당 Zanu-PF는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함.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야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확실시 되었으나 무가베 대통령 측은 개표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2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했음. 그 중 18개 지역구의 재검표 결과가 기존 결과를 확증, 1980년 무가베 집권 이후 최초로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됨.

□ 대선결과 발표 지연으로 사회혼란 초래

- 지난 2000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도 무가베가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한 달여간의 선거결과 발표 지연 배경에는 과거 대선과 마찬가지로 무가베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허위 등록된 유권자들이 속출하는 등 선거 기간 중 부정선거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으며 검표 기간 중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함.
- 대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가베 정권의 야당 탄압행위가 지속됨.
 - 무가베는 선거결과 발표를 늦추며 민병대 및 경찰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야당인사 및 야당 지지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구금과 방화를 비롯한 조직적 테러를 자행함. 야당탄압은 도를 넘어 수백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권 여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야당의 억지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음.
 - 쯔방기라이 자신은 대선 이후 잇따른 MDC 인사의 탄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변국으로 피신했으며 MDC지지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무가베 측의 테러행위로 인해 보츠와나를 비롯한 인근 국가로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쯔방기라이는 무가베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신변의 위협을 가해 2차 결선투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권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무가베를 맹렬히 비난함.

□ 결선투표의 평화적 이행여부 불투명

- 2차 결선투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무가베 측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서방 선거감시단 및 기자의 취재를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금번 2차 결선투표에서도 원천 봉쇄할 방침인 반면, 쯔방기라이 측은 평화적인 분위기 하에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유지군 및 선거감시단의 파견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향후 두 후보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국제기구 및 영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은 금번 결선투표가 외부 선거감시단의 지도하에 치러지지 않는 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무가베를 지지하는 민병대들이 경찰로 위장, 결선투표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선거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 또한 극도로 낮은 것으로 예측됨.

□ Governance의 실패가 경제파탄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

- 무가베의 실정은 2000년 이후 짐바브웨 경제파탄을 야기함.
 - 독립영웅으로 추대 받던 무가베 대통령은 90년대 초반까지 농업부문 성장에 힘입어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음. 그러나 정부 정책 실패와 무가베의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및 야당인사 탄압을 제재하기 위한 서방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말미암아 2000년 이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80%의 실업률, 100,0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짐바브웨 국민들은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사정을 감내해왔음.
- 토지개혁으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감이 짐바브웨 경제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 짐바브웨는 비옥한 경작지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농업국가로 옥수수뿐만 아니라 주요 작물을 자급자족할 뿐 아니라 주변 남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식량작물을 수출, '아프리카의 빵공장(Bread Basket)'으로 여겨졌음. 또한 상품작물인 담배, 면 및 설탕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이었음.
 - 날로 하락하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2000년 무가베 대통령은 소수 백인 소유의 농장을 몰수해 흑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극단의 토지개혁을 단행함. 짐바브웨 정부가 허가하거나 투자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백인 농장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이 내려져 지난 7년 동안 총 4,500여개에 달하던 백인 소유의 농장 중 90% 가량이 몰수됨.
 - 흑인농장주의 열악한 영농기술로 말미암아 토지개혁 후 7년간 짐바브웨의 농업총생산량은 44% 급감, 식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여기에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짐.

-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치안 불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급등, 남아공을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노동자 이탈로 농업종사인구의 급감이 농업생산에 다시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줄어든 농업생산량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짐바브웨 사태와 관련한 주변국의 복잡한 정세

- 짐바브웨 사태에 관한 남아공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남부아프리카 15개 회원국 간 경제발전 및 정치·사회분야 공조체제를 도모하는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는 짐바브웨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3월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 대통령을 중재자로 선정하고 공정선거를 통한 짐바브웨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옴.
 - 무가베 정권과 오랜 유대를 맺어온 주변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 남아공 음베키 대통령은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난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채 사태해결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옴. 쯔방기라이 총재는 음베키 대통령이 그동안 무가베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하며 중재자 역할에서 물러나 레비 음와나와사 잠비아 대통령에게 그 역할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함.
- 무기하역 금지 사건으로 중국과 무가베 정권과의 밀월관계가 드러남.
 - 지난 4월 18일, 중국 상선 '안웨장(安岳江)'호가 내륙에 위치한 짐바브웨에 무기를 전달하기 위해 남아공 더반에 무기를 하역하려 하였으나 무가베 정권이 이 무기들을 시민 소요 진압에 사용할 소지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남아공을 비롯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기 하역을 불허, 아프리카 해역을 배회하다 본국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도됨.

- 지난 2002년 이후 유럽연합이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짐바브웨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이후, 무가베 정권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짐바브웨 내 광물 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풍부한 광물자원

-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짐바브웨.
 - 짐바브웨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515Km의 암맥인 그레이트 다이크 (the Great Dyke)는 금, 백금, 다이아몬드, 크롬, 니켈, 우라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음. 금의 경우 1999년 아프리카 내 5번째 금 생산국이었으며 백금 또한 남아공,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의 백금 수출국 지위를 누렸음. 그 외에도 니켈, 크롬의 매장이 확인되었으며 우라늄 또한 지난 2000년 20,000톤의 매장량이 확인됨.
-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말미암아 광물자원의 본격적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 금, 백금 등 원자재의 국제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광물자원 개발의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생산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생산시설 확충의 어려움, 무가베 정권의 자원생산시설 국유화 위협, 생산시설에 대한 짐바브웨인 소유 지분 규제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자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동국의 경제개발 동력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연구원 정재현 (☎02-3779-6651)
 E-mail : jhjung@koreaexim.go.kr